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혜경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귀인: 일반적 신뢰의
조절 효과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 하 영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귀인: 일반적 신뢰의
조절 효과

박혜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이하영

인 준 서

이하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조영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서수연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박혜경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타인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경험할 때, 그리고 행위자가 내집단 구성원일 경우와 외집단 구성원일 때, 그 행동을 어느 정도로 내부 귀인 및 외부 귀인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행위자의 집단 소속: 내집단원 vs. 외집단원)x2(행동의 유인가: 유쾌 vs. 불쾌)x2(일반적 신뢰 수준: 고 vs. 저)의 반복측정 혼합설계로 수행되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328명을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가자들은 일반적 신뢰 척도, 귀인 척도,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신뢰에 따른 귀인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내부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일반적 신뢰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낮은 일반적 신뢰의 연구 참가자들에게서는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높은 일반적 신뢰의 연구 참가자들은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을 내적 속성으로 여겨 긍정적으로 귀인하였다. 또한 내집단원에 한하여 불쾌한 행동을 보다 더 내부 귀인하는 검은 양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들은 일부 지지되어 귀인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반복검증 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일반적 신뢰를 다루었다는 점과,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의 행동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신뢰가 갖는 긍정적 기능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일반적 신뢰, 귀인, 행동의 유인가, 내집단원, 외집단원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9
1. 귀인	9
1)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	9
2)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행동에 대한 귀인	12
3) 귀인과 행동의 유인가	14
2. 일반적 신뢰	17
3. 일반적 신뢰와 귀인	20
III. 연구문제 및 가설	26
IV. 연구방법	28
1. 예비 연구	28
2. 본 연구	29
1) 연구 참가자	29
2) 측정도구	30
① 귀인	30
② 일반적 신뢰 척도	31
③ 편집성향 척도	32
④ 인구통계학적 특성 질문지	32
3) 연구 절차	33

4) 분석 방법	33
V. 연구결과	35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	35
2.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귀인의 차이	37
3.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 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38
4.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39
1) 내부 귀인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	39
2) 외부 귀인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	42
VI. 종합 논의	44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및 그림 목차

I. 표 목차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37
3.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내부 귀인의 변량분석	40
4.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내부 귀인의 변량분석	41
5.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외부 귀인의 변량분석	42
6.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외부 귀인의 변량분석	43

II. 그림 목차

1. 내부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행동의 유인가×일반적 신뢰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40
--	----

I. 서론

우리가 낯선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숙고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많은 국가로 구성된 전 세계를 지구촌으로 표현할 정도로, 현대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이다. 이로 인해 현대인들은 수많은 낯선 타인들과 마주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 적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이고 성숙한 관계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들과 소통을 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가치이자 자원 중 하나로 신뢰를 들 수 있다(Uslaner, 2002/2013).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과학자들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하여 왔으며, 시장과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신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Fukuyama, 1995/2002; Putnam, 2000/2009).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비밀을 털어놓거나 소중한 것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신뢰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요소이다(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김양하, 2005). Yamagishi와 Yamagishi(1994) 또한 관계의 생성 또는 확장의 측면에서 신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의 신뢰는 어떠한가? 제 6차 세계가치관조사(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에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신뢰가 측정되었다. ‘전반적 신뢰’를 묻는 문항의 경우, 응답자들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

심해야 한다고 보는'지의 2가지 응답에 대한 비율이 유사한 국가는 6개국이었으며 이 국가들이 신뢰가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나라의 응답자들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는 응답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한국의 순위는 신뢰가 높은 순서로 61개국 중 11번째였지만, 러시아, 쿠웨이트 및 이라크보다 낮은 순위였다. 이 세 나라는 OECD 회원국이 아니어서 한국보다는 선진화가 덜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한국인의 전반적 신뢰는 이 국가들보다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응답자 1,200명중 "전반적으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26.5% 였고, 그 외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에 응답하였다. 즉, 상대적 비교에 의한 영향으로 순위가 상위권이라고 할지라도 신뢰 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인 낮은 수치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낮은 신뢰 수준은 경제와 정치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류태건, 2014;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박병래, 2003; Delhey, Newton, & Welzel, 2011; Fukuyama, 2002; Yamagishi & Yamagishi, 1994). 이처럼 낮은 수준의 신뢰는 현실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발생하였던 불량 부품의 사용, 각종 부패와 비리를 예로 들면서 낮아지는 한국사회 내의 신뢰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강철희, 이상철, 2013). 또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매체로 접한 학생들은 어른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도홍찬, 2015),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 낮아졌다(이동규, 민연경, 2014). 사회 구성원들이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의 수준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사회의 특성과 역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신뢰라는 단어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일 때, 일상생활에서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사람들은 신뢰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의 용어

로 혼돈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으나(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설명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어서 신뢰의 의미는 여러 용어로 제안되어 왔다(Barber, 1983; Fukuyama, 2002; Newton, 2007; Putnam, 2000/2009; Usnlaner, 2002; Yamagishi & Yamagish, 1994).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반적 신뢰의 개념을 소개하기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신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적 신뢰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동차의 소유주가 정비소에 고장 난 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상황에서 신뢰의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정비소에 기대하는 신뢰는 정품, 또는 규격에 맞는 부품을 사용할 것, 지나치지 않은 적절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것,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수리할 것, 그리고 보다 정교하고 견고하게 수리하여 줄 것 등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의미의 신뢰들을 나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정비소 사장이나 직원들의 정직, 성실 및 우수한 기술 등을 믿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즉, 정비소 측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잘 고치려는 의도와 능력을 갖고 있고 약속을 엄수하는 행위를, 차를 수리하고 소유주에게 인도하는 과정에 반영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일상에서의 신뢰는 상대의 ‘의도’, ‘능력’ 및 ‘약속 이행’ 등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뢰의 대상이 친밀하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타인이며, 그 타인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의도’가 없다고 여기는 믿음을 ‘일반적 신뢰’라고 한다(Uslaner 2002; Yamagishi & Yamagishi, 1994).

제 6차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전반적 신뢰’를 묻는 2개의 문항과는 별도로, ‘처음 보는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묻는 조사 또한 수행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통해 한국의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응

답은 다음과 같다.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0.9%, 약간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18.1%였으며, 매우 또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이 80.4%였다. 낯선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반영하는 이 문항에서 한국의 순위는 신뢰가 높은 순서로 60개국에 중에 40위로 나타났다.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여 4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류태건, 2014), 한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인 대상은 ‘가족’이었으며, 여러 유형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독일과 미국의 신뢰 수준이 높게, 일본과 한국의 신뢰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 고유의 신뢰 개념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한 최상진 등(2003)의 연구에서도,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신뢰는 그동안 제안된 여러 유형의 신뢰 개념 중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뢰 즉, 사적 신뢰와 유사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반적 신뢰’는 다음과 같은 현실 때문에라도 더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활발한 세계적 교류를 통해 낯선 타인들과의 접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며,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즉, 낯선 타인을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등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원만한 교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 단체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영수, 2004; 박상필, 2001; 정수복, 1996).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시민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자선 단체와 정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면 낯선 타인들과의 교류가 증가되고 신뢰가 확장되었다(Putnam, 1993, 2000/2009; Uslaner, 1998). 따라서 타인과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신뢰를 확장시키는 선순환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낯선 타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 신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두드러진다(Newton, 2009).

개인이 타인을 대하고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태도가 바람직한지 가늠할 수 있는 오래된 격언들이 있으며, 그 중 성경에 기록된 ‘황금률’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참고할 만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타인을 지나치게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보지 말고 자신에게 하듯 대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 한국 사회에서 속담처럼 쓰이는 말 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와 같이 타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특징이 반영되니 타인을 좋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을 권하는 표현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피아-내집단과 외집단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태도에는 개인이 지닌 특징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인 사고에서 귀인은 사람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권석만, 201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특성 중 하나인 일반적 신뢰와 귀인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할 때 타인과의 관계, 혹은 행동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유인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행동의 원인을 긍정적으로 추론할 가능성이 있다. 귀인에 대한 이러한 상식적 예측은 오래 전에 제안되고 이후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Doosje & Branscombe, 2003; Heider, 1958; Tarrant & North, 2004).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타인이 내집단 구성원인지 외집단 구성원인지에 따라,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다르게 추론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집단원에 비하여 내집단원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Hewstone, 1990; Hewstone, Rubin & Willis, 2002). 구체적으로, 내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내부귀인을 하고 불쾌한 행동은 보다 외부귀인을 하며, 외집단원의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반대로 귀인을 한다. 이러한 귀인 편향을 내집단 편향이라

고 한다(Aronson, Wilson & Akert, 2010).

한편, 한국에서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내집단 편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을 기준으로 하는 내집단 유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외집단에 대하여는 배타적이거나 비우호적(양준용, 유명순, 2014; 이승민, 설선희, 2018; 이재열, 2015)인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낯선 타인의 행동을 비우호적으로 귀인하는 정도가 더 현저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을 대상으로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커서, 내집단 편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내집단 편향은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인간 본성이 반영된 보편적 현상이지만(Taylor & Doria, 1981), 내-외집단원에 대하여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큰 차별적인 내집단 편향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외집단원에 대한 차별적 귀인은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성격 5요인(Big 5)의 일부 요인인 친화성과 개방성의 개인차 변수와 접촉 경험이 비만 편견에 미친 영향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Jackson, James, Poulsen, & Dumford, 2016). 이 연구에서 높은 친화성은 접촉 경험을 매개로 낮은 비만 편견을 예측하였으며, 공감과 접촉 경험을 매개로 상대방에 대한 보다 높은 수용을 예측하였다. 높은 수용이란 구체적으로, 상대를 덜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비만 원인에 대하여 보다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높은 친화성은 타인의 부정적 상태에 대하여 보다 외부 귀인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한편, 친화성이란 편안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뜻하며, 친화성 점수가 높

은 사람들의 특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협조적이며 관대하고 이타적이다(김미영, 나승일, 2015;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Yuan Ying Jin, 2010). 친화성의 6가지 특유의 양상은 신뢰, 솔직함, 이타주의, 순종, 겸손, 부드러운 마음씨로 구성된다(Gosling, Rentfrow, & Swann Jr, 2003; McCrae & Costa Jr, 1997).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듯 Yamagishi의 일반적 신뢰 척도를 사용하여 스페인에서 실시된 연구는, 일반적 신뢰가 Big 5 중에서 친화성(Agreeableness)과 유일하게 유의한 상관관이 있음을 보였다, $r = .376, p < .01$ (Montoro, Shih, Román & Martínez-Molina, 2014). 따라서 친화성과 상관관이 있는 일반적 신뢰는 귀인 양상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귀인과 일반적 신뢰는 모두 대인사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귀인의 절차는 행동의 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기(Shaver, 1975/1991) 때문에 여전히 귀인과 일반적 신뢰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일반적 신뢰 수준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외부 귀인적 변명에 대한 수용과의 상관 연구에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가 암묵적 규칙을 위반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상황적 설명을 하였을 경우,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참여자가 그 설명을 더 믿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는 신뢰가 높은 개인이 타인의 도덕적 의도에 대하여 의심을 덜 하고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타인의 선의를 믿은 것으로 해석하였다(Stouten, Cremer & Dijk, 2006).

신뢰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일반적 신뢰에 대한 국내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신뢰의 문제가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논의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의 수준에 따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귀인에서의 내집단 편향이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내집단 편향의 크
기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귀인

1)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

귀인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 발생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으로, 여러 차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일례로, Weiner(1979)는 성취 행동의 맥락에서 소재, 안정성, 통제성의 3가지 차원으로 귀인을 분류하였다. 귀인의 소재(방향) 차원에서는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구분한다. 이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은 각각 안정성 차원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면 안정 귀인,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면 불안정 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통제성 차원에서 이들 귀인은 통제하기가 쉽거나 어려운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적이며 안정 귀인인 노력은 통제하기가 쉽고, 외적이며 불안정 귀인인 행운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부 귀인은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사람의 성격, 태도, 기질 등 개인의 내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기질 귀인이라고도 한다. 반면,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을 외부 귀인, 또는 상황 귀인이라고 한다(Heider, 1958; Peterson, Maier & Seligman, 1993, Weiner, 201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 상황적 설명보다는 기질적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나(Ross, 1977), 자신의 행동을 귀인할 때에는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귀인의 방향을 달리한다.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기질적인 요인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Heider, 1958; Jones & Nisbett, 1971; Weiner, 1992).

위에 간략하게 기술한대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내부 귀인하는 경향이 있으나, 타인의 행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귀인의 방향을 다르게 추론한다. 타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고, 그 행동이 시간이 흘러도 일관되게 나타나며,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행동이 나타날 때 내부 귀인을 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과 같거나 유사한 행동을 하고, 시간에 따라 행동이 변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외부 귀인을 한다(Kelley, 1973). 그리고,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는 자신의 행동의 귀인 방향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은 내부 귀인을, 긍정적인 행동은 외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다(Hewstone, Rubin & Willis, 2002). 이러한 차별적 귀인은 외집단원에 대하여 인지적 편향인 고정관념에 반영된다(Hewstone & Cairns, 2001; Chirrot, D. E., & Seligman, M. E., 2001에서 재인용).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된 귀인 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도 역시 내부 귀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하여, 다소 비우호적으로 인식하며 인색하게 평가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람들이 타인에 대하여 내부 귀인하는 경향을 완화하면 외집단(원)에 대하여 고정관념이 약해진다. 일례로, 연구 참가자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객관적 관점을 취하여 고정관념을 무시하도록 하는 조건에 노출되면, 보다 외부 귀인을 하며 고정관념이 감소하였다. 또한 외부 귀인은 객관적 관점과 긍정적인 집단간 태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Vescio, Sechrist, Paolucc, 2003). 또다른 연구에서는 외부 귀인 훈련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자동적 고정관념이 적다는 것이

보고되었다(Stewart, Latu, Kawakami & Myers, 2010).

귀인은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적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타인에 대한 귀인 역시 귀인하는 주체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내부 귀인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 Nisbett 1998; Masuda & Kitayama, 2004; Morris & Peng, 1994). 이러한 문화의 차이는 성격, 가치관 또는 신념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다른 내적 특성들 또한 타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 중 하나인 개방성의 경우 고정관념이 완화된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백인을 대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인종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인종적 태도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집단간 편향의 감정적 측면)과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것이었으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Flynn, 2005). 높은 개방성과 고정관념의 부적 상관은, 앞에서 소개한 덜 내부 귀인하거나 더 외부 귀인하는 경향이 고정관념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Stewart, Latu, Kawakami & Myers, 2010; Vescio, Sechrist, Paolucc, 2003)과 함께 고려하면, 개방성이라는 개인 내적 특성이 귀인 양상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례로,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적대적 귀인 편향은 성격 5요인 모두에서 정적이거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외향성($r = -.12, p < .05$)이나 성실성($r = -.12, p < .05$)보다 개방성($r = -.13, p < .05$)과 친화성($r = -.13, p < .05$)과의 상관이 약간 더 높았으며 공격성과 적대감이 하위 요인으로 포함된 신경증($r = .25, p < .01$)과는 가장 높고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Kokkinos, Karagianni, & Voulgaridou, 2017).

타인에 대한 편견이 낮은 개인은 상대방의 행동을 종합하여 타인마다의 개별적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편견이 높은 개인은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행동을 내부 요인에 귀인하고, 고정관념에 불일치하는 행동은 외

부 귀인하여, 타인을 개별적으로 인지하기보다는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Sherman, Stroessner, Conrey & Azam, 2005).

이와 같이 귀인의 양상은 다양한 조건과 맥락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커다란 범주와 맥락의 차이는 물론 개인의 내적 특성에서 귀인 양상의 차이가 탐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특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귀인의 차이를, 다음에 소개하는 두 조건-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을 고려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2)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행동에 대한 귀인

사회집단은 여러 기준에 의하여 구분될 수 있다. Tajfel과 동료들(1979)은 개인이 자신을 집단과 같은 사회적 범주로 인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정서를 느끼고 공유하며, 집단과 구성원을 평가할 때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지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이 내집단원인지 외집단원인지만 알고 있을 경우 내집단원을 더 좋아하는데, 이는 외집단원을 명시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 내집단원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Balliet, Wu, & De Dreu, 2014; Brewer, 1999; 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한편, 행위자의 소속이 내집단인지 외집단인지에 따라 귀인의 소재가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외집단원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내집단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와 비교하여, 마치 유전적으로 결정된 듯 기질 귀인을 하였다. 반면, 외집단원의 행동이 긍정적일 때는 상황적 요인들이나 다른 이유로 귀인을 하였다(Hewstone, 1990; Hewstone, Rubin, & Willis, 2002; Pettigrew, 1979).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행동에 대한 귀인은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

하게 연구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귀인 편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Ybarra, Stephan & Schaberg, 2000). 구체적으로, 남녀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별과 같거나 다른 행위자의 행동 진술문 조건에 무선 할당되어 각각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행동의 기질 귀인이나 상황 귀인 진술문을 읽었다. 이어서 연구 참가자들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무관 과제(filler task)에 응답한 후, 읽었던 진술문을 회상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행동의 기질 귀인보다는 상황 귀인 진술문을 더 잘 회상하였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는 상황 귀인 진술문보다 기질 귀인 진술문을 더 잘 회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회상에서만 나타나고,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회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내집단과 외집단이 생득적으로 구분된 경우(성별, 인종 등)뿐 아니라, 내집단과 외집단이 사후 획득되어 구분된 경우에도 귀인의 소재가 연구되었다(Tarrant & North, 2004). 구체적으로, 대학의 학부생들은 점화를 통해 락 콘서트를 선호하는 집단, 또는 클래식 콘서트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 다음,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의 친구, 그리고 친구가 아닌 사람이 최근 락 콘서트나 클래식 콘서트에 참석하였다고 상상하였으며, 주어진 빈 종이에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이 콘서트에 참석한 이유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참석한 행동에 대한 귀인의 방향, 전반성 및 안정성을 응답하였다. 선행 연구(Tarrant, North & Hargreaves, 2001)에 따르면, 학부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콘서트에 참석하는 행위는 긍정적 행위로, 나머지 다른 콘서트에 참석하는 행위는 부정적 행위로 평가한다. 친구들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의 긍정적 행동보다 내부 귀인, 전반적 귀인, 안정적 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 반면, 친구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친구가 아닌 사람들의 부정적 행동보다 내부 귀인, 전반적 귀인, 안

정적 귀인을 더 적게 하였다.

귀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집단 편향은 부정적인 행위의 맥락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법자인 내집단 구성원은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어지고(Marques, Yzerbyt, & Leyens, 1988), 내집단 구성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내집단 편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검은 양 효과’라고 한다. 검은 양 효과는 위법 행위의 특징, 부정행위를 저지른 집단 구성원의 특성, 부정행위를 평가하는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Otten & Gordijn, 2014).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 편향을 반복검증하게 된다. 한국문화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내집단원-외집단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쾌한 행동의 경우 행위자의 소속이 내집단일 경우보다 외집단일 경우 덜 내부귀인하고 더 외부귀인할 것이다. 불쾌한 행동의 경우 검은 양 효과가 나타나,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양상이 유사하거나 외집단원의 행동보다 오히려 내집단원의 행동에 대하여 더 내부귀인하고 덜 외부귀인할 가능성이 있다.

3) 귀인과 행동의 유인가

귀인은 행동이나 사건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유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여겨지고(Shaver, 1975/1991), 기질 귀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Gretarsson & Gelfand, 1988; Hewstone, 1990; Jones & Davis, 1965). 또한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하여는 기질 귀인을,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는 상황 귀인을 한다(Arkin, Cooper & Kolditz, 1980; Mullen & Riordan, 1988). 즉, 사람들은 스스로를 우월하고 좋은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귀인을 하며(Miller & Ross, 1975), 이러한 경향을 개인 수준에서 집단 수준으로 확장하기도 한다(Fiske & Taylor, 2006/2010; Taylor & Koivumaki, 1976). 자기가 속한 집단의 긍정적 행위는 내집단의 자질로, 부정적 행위는 외부의 원인으로 귀인한다(Brewer, 1999). 그리고 타인의 행위를 기질적 요인으로,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행위자-관찰자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인 메타분석에서, 사건의 유인가가 부정적일 때 귀인의 차이가 더 현저함을 알 수 있었다(Malle, 2006). 이 분석에서 귀인의 차이는 내부귀인(I)에서 외부귀인(E)을 뺀 값(I-E)이었으며, 부정적 사건에서의 관찰자들의 I-E 절대값은 긍정적 사건에서의 I-E 절대값보다 컸다. 따라서 행동이나 사건의 유인가는 귀인의 소재와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행동의 유인가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은 행동의 긍정-부정 유인가에 따른 내부-외부 귀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인가의 정도에 따라서도 귀인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부도덕한 행동에서 유발된 부정적 정서의 정도에 따라 귀인이 달라진다는 연구에서, 부정적인 정도에 따라 내부 귀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Trafimow, Bromgard, Finlay, & Ketelaar, 2005). 이 연구자들은 부정직한 행동이 비우호적인 행동과 구별되어 보다 부도덕하며 부정성의 가중치가 더 높다고 제안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네 명의 부정직한 행동의 행위자와 네 명의 비우호적 행동의 행위자, 총 8명 각각에 대하여 기질 귀인의 정도, 행위의 부정직성과 비우호성의 정도, 행동에서 느껴지는 정서 등이 외에도 몇 가지 요인을 평가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행위의 부정직성 정도와 비우호성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강하였다. 그리고 정서를 강하게 느낄수록 행위자의 기질 귀인 점수를 높게 평가하였다. 즉, 부정적 행동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유인가의 정도가 다르며, 같은 종류의 유인가의 범주에서 그 정도에 따라 귀인의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들은 어떤 인물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 보다 전형적으로 비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일수록, 그 인물의 감정과 태도가 그 인물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믿었다 (Johnson, 2001).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어떤 인물이 부정적인 행위나 빈약한 수행을 ‘빈번하게’ 보인다는 정보를 읽으면, 그 인물이 이전부터 자주 표현한 감정과 태도를 그 인물의 안정적 특성으로 여기는 정도가 컸다. 반면, 인물의 부정적인 행위나 빈약한 수행이 ‘드물다’는 정보를 읽으면, 그 인물이 표현하던 감정과 태도를 안정적 특성으로 여기는 정도가 적었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비바람직성이 더 ‘강한’ 행위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행위자의 내부적 요인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유인가의 정도에 따른 귀인의 차이는 주로 ‘부정’적인 행동이나 사건과 ‘내부’ 귀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긍정성보다 부정성에 더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Baumeister et al., 2001; Rozin & Royzman, 2001). 또한, 부정적인 행동이 일반적으로 내부 귀인과 관련된다고 믿는다는 점은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더불어 앞에서 소개한 Ybarra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기질에서 기인한’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상황에서 기인한’ 부정적인 행동보다 더 잘 기억하였던 반면, 긍정적인 행동은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을 때 더 잘 기억하였다.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느끼는 유쾌함이나 불쾌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동의 특성과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행동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기분인 유쾌함이, 부정적인 행동에서는 부정적 기분인 불쾌함이 유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분류되는 바람직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 성공이나 우수한 수행 결과에서는 유쾌함을 느낄 것이다. 반면, 일탈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 실패나 빈약한 수행 결과에서는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유쾌한 타인의 행동을 덜 내부 귀인하고, 보다 외부 귀인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불쾌한 행동을 보다 내부 귀인하고 덜 외부 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집단과 비교하여 내집단의 긍정적인 행동은 더 기질 귀인을, 부정적인 행동은 더 상황 귀인을 한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내집단의 실패의 원인을 내부보다 외부로부터 추론하였고, 외집단원의 성공의 원인은 운, 노력, 또는 쉬운 과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였다(Hewstone, 1990; Hewstone, Rubin, & Willis, 2002).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귀인은 이처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타인의 집단 소속은 행동의 유인가와 상호작용하여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여, 내집단원의 행동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귀인하여 내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을 보다 내부 귀인한다면,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은 덜 내부 귀인할 것이다.

2. 일반적 신뢰

일반적 신뢰란 낯선 타인이나 알지 못하는 상대가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뜻한다(Yamagishi & Yamagishi, 1994). ‘신뢰, trust’의 사전적 의미는 ‘the belief that somebody/something is good, sincere, honest, etc. and will not try to harm or trick you’(Oxford Learners Dictionaries, 2019)이며, 그 대상이 낯선 타인일 경우 ‘일반적’ 신뢰로 정의한다(Yamagishi & Yamagishi, 1994). 이후 여러 학자들도 신뢰를

Yamagishi와 Yamagishi(1994)가 정의한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안하였다 (Das & Teng, 1998; Elangovan & Shapiro, 1998; Hagen & Choe, 1998; Rousseau, Sitkin, Burt, Camerer & Colin, 1998; Whitener, Brodt, Korsgaard, & Wemer, 1998). Yamagishi 등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일본인들보다 미국인들이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다는 경험적 증거들(Yamagishi, 1988a; Yamagishi & Yamagishi, 1989)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통적 이미지와 배치되는 것이었으므로, Yamagishi와 동료는 신뢰의 개념과 정의를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일반적 신뢰 개념의 핵심은 2가지이다. 신뢰의 대상이 '낯선 타인'이라는 점과 타인의 '의도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일반적 신뢰의 대상인 타인이란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낯선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일반적 신뢰는 인간 본성의 자비와 선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이나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다(Uslaner, 2002/2013; Yamagishi & Yamagishi, 1994). 신뢰의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는 하여도, 다른 연구에서도 가족주의를 넘어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직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회를 고신뢰 사회라고 칭하며, 신뢰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Fukuyama, 1995/2002).

일반적 신뢰에서의 타인은 가족이나 연고 있는 지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랜 상호 작용을 통해 정보를 축적한 결과, 친절하거나 자비롭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 타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 신뢰는 '사적 신뢰'와 구분된다. 사적 신뢰는 자신과 비슷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형성된 신뢰이다. 사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들은 공동체 밖의 타인들을 경계하고, 그 타

인들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 사적 신뢰만 높으면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의 사람만을 신뢰하고 낯선 타인에 대하여는 의심하고 적대적으로 여기게 된다(Uslaner, 2002/2013). 이러한 인지 과정은 낯선 타인에 대한 태도, 해석 및 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신뢰의 대상에 낯선 타인을 포함하지 않으면 즉, 일반적 신뢰가 없거나 적으면 낯선 타인에 대한 태도와 해석의 양상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신뢰와 관련된 인지 과정은 대인 관련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대인 사고 과정인 귀인에서,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타인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추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신뢰에서의 ‘타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능력’이 아닌 ‘선의’에 대한 기대이다. ‘능력’과 ‘선의’에 따른 신뢰의 분류는 Barber(1983)의 제안에 기초하였다(Yamagishi & Yamagishi, 1994). 능력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관계와 시스템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유능한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이며, 선의에 대한 기대는 타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도덕적 선택을 할 것에 대한 기대이다(Barber, 1983). 이 두 가지 개념, 즉 유능한 역할 수행과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무는 논리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다. 예를 들어, 조종 실력이 빈약하여 비행기를 추락시킨 조종사의 무능력함은 비행기를 추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Yamagishi & Yamagishi, 1994). 즉,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능력’이 아닌 ‘의도’가 선하며 긍정적이라고 추론할 것이다.

신뢰 관련 연구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질서나 구조적 문제, 갈등의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 근현대 이후에는 경제나 체제의 측면에서 신뢰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노진철, 2014). 최근에는 개인 수준에서 신뢰가 어떠한 요

인들과 관련되며, 또한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낮은 사람을 믿지 말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경우 친밀한 대인관계 발전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에서 고독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Terrell et al., 2000). 상대방의 신뢰를 단서와 부합되도록 평가할 때, 신뢰 관련 단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경향은 정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지적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타인에게 잘 속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여 일반적 신뢰가 낮은 사람들보다 상대의 행동을 더 잘 예측하였다(Yamagishi, Kikuchi, & Kosugi, 1999).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몇몇 연구에서 이러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청소년들은 타인이나 사회를 신뢰하고 공동체 의식이 높았으며(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일반적 신뢰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과 나누는 즐거움을 적게 느꼈다(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또한 신뢰에 대한 사회비교의 영향을 탐구한 연구가 있는데, 조직 내에서 동료들 간의 상향식, 그리고 하향식 사회비교는 정서적 신뢰와 인지적 신뢰를 해친다(Dunn, Ruedy & Schweitzer, 2012). 이와 같이 개인 수준에서 대인 관계, 행복, 정서 및 사회 비교를 탐색하는 신뢰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일반적 신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의 영향을 개인 수준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3. 일반적 신뢰와 귀인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귀인에서 내집단 편향을 덜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외집단원의 긍정적 행동은 보다 내부 귀인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보다 외부 귀인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연구에서는 공평성을 위반한 상대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였다(Stouten, Cremer & Dijk, 2006). 구체적으로, 추가 학습 여행을 위해 참가자들이 ‘일정금액’을 모으면, 학교에서는 모인 기금의 2배의 경비를 지원하여 주는 시나리오가 설정되었다. 참가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이 내야하는 금액은 ‘일정금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돈을 모은 결과 일정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한 참가자가 적은 돈을 납부하여 지원금은 못 받게 되었다.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참가자는 공평성을 위반한 사람의 위반할만한 외부적 이유를 설명을 믿는 편으로 타인의 선의를 믿는 쪽이었다. 즉, 공평성 위반자의 외부 귀인을 수용하였다.

귀인은 원인의 방향을 추론하는 인지 과정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향되기 쉬운 정신 과정이다. 또한, 귀인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도를 평가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타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 과정은 행위 관찰, 행위의 의도 여부 평가, 행위의 자발성 평가로 이루어진다(Shaver, 1975/1991). 귀인의 방향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편견의 영향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궁극적 귀인 오류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론 설립 초기의 연구(Pettigrew, 1977)에서 밝혀졌다. 궁극적 귀인 오류는 ‘긍정적 행동이나 결과’의 주체 혹은 행위자가 내집단일 때는 내부 귀인을, 외집단일 경우 외부 귀인을 하는 집단 귀인 편향을 말한다. 집단 간, 특히 생득적 집단 간 편향에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고, 집단 간 편향을 탐색하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의 내용이 부정적인 ‘편

견'이나 고정관념을 점화하는 것이다(Hewstone, 1990; Hewstone, Rubin, & Willis, 2002; Ybarra, Stephan, & Schaberg, 2000). 이러한 과정에 타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에 대하여 낙관적 기대를 하는 개인, 즉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인지과정에서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 제안은 Yamagishi와 Yamagishi(1994)가 기술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에서 간접적으로 그 타당성이 뒷받침 된다.; “A trusting person is the one who overestimates the benignity of the partner’s intentions beyond the level warranted by the prudent assessment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즉, 신뢰가 높은 개인은 상대방의 의도의 긍정성을 높게 기대하는데, 이러한 개인에게는 편견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성향, 일례로 일반적 신뢰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utnam(2000/2009)은 일반적 신뢰와 유사한 호혜적 사회 신뢰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면서 공감대를 구축하게 하고, 상호 다른 점을 인정하고 관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타인이나 환경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보다 유연하고 가변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론할 때 주어진 정보에 기반한 인지적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의도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으로 귀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기본적 귀인 오류가 정직과 기만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킨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O’Sullivan, 2003). 구체적으로, 정직과 기만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관찰자는 기만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관찰자에 비하여, 행위자를 평가할 때 주어진 기질적 정보와 상황적 정보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연

구자들은 정확한 관측자가 덜 냉소적이고 덜 순진하다고 해석하였다. 요컨대, 기본적 귀인 오류를 적게 범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사실과 정보를 토대로 인지적 처리를 하여 편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내집단 편향이 적은 귀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타인의 신뢰성(trustworthiness), 즉 다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므로, 주어지는 정보에 민감하여 편향이 적고 사실과 정보에 기반한 사고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신뢰와 귀인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한 행위자가 부정적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찰자가 그 원인을 행위자에게 내부 귀인하면 행위자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다(Mayer, Davis, Schoorman & David, 1995). 그리고 행위자가 잘못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귀인의 방향을 통제 불가능한 외부로 돌리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Tomlinson & Mryer, 2009). 여기에서의 신뢰는 일반적 신뢰와는 다르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는 데 관련된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귀인성향이 포함(박원우, 류승민, 2005)되므로, 일반적 신뢰가 높으면 귀인 편향을 적게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관찰한 행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의도가 적대적이라고 판단하는 적대적 귀인 편견을 보이는(Bailey & Ostrov, 2008; Steinberg & Dodge, 1983) 대신, 타인의 의도를 낙관적으로 해석한다(Uslaner, 2002/2013; Yamagishi & Yamagishi, 1994). 타인에게 우호적이며(Montoro, Shih, Román & Martínez-Molina, 2014), 외집단을 경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타인에게 우호적인 개인은 주의력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분산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O'Sullivan, 2003; Tomlinson & Mryer, 200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여 타인의 불쾌한 행동을 경험할 때 타인의 행동을 귀인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상황 정보를 보다 더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신뢰가 높을 경우 귀인을 할 때 타인의 행동의 유쾌함과 불쾌함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관련 단서를 앞에서 인용한 학습 여행 경비의 공평한 부담을 위반한 경우를 탐색한 연구(Stouten, Cremer & Dijk, 2006)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공평성을 위반하는 불쾌한 행동을 한 행위자에 대한 정서(irritation)를 측정된 결과, 일반적 신뢰가 낮은 연구 참가들은 공평성 위반 행위자가 내부 귀인 변명을 하든 외부 귀인 변명을 하든 짜증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일반적 신뢰가 높은 연구 참가자들은 내부 귀인 변명을 들었을 경우에만 짜증의 정도가 높았다. 이 경우, 귀인이 선행하고 이후 위반자에 대한 정서를 측정된 것이어서 본 연구의 제안을 타당하게 지지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쾌한 행동을 경험하는 주체가 스스로 타인의 불쾌한 행동의 원인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Yamagishi와 Ymagishi(1994)가 제안한 낙관적 기대가 인지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 즉,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행동의 불쾌함이, 귀인 과정에서 낙관적 기대감에 의해 완화되어 타인의 불쾌한 행위를 덜 내부 귀인하고 보다 외부 귀인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타인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로, 남을 의심하고 탓하는 편집성향은 일반적 신뢰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인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MMPI-2의 6번 척도는 편집증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를 통해 집착, 의심, 과민성 및 각종 망상의 정도와 징후를 측정한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의심과 경계심이 많고 적대적이며, 지나치게 민감하다. 또한, 논쟁을 좋아하며, 남을 탓하기를 잘하는 특징이 있다(Graham, 2006/2007). 이러한 증상의 많은 부분은 남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편집성향과 일반적 신뢰와의 부적 상관이 유추된다. 일례로, 종합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에서 타인이 자

신을 이용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83.8 %)이 타인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Uslaner, 2002/2013). 또한 귀인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편집성향이 높은 연구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과 내부 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에게서 비롯된 원인이나 책임이 적다는 방어적인 귀인 편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호택, 이훈진, 1997). 요컨대, 편집성향은 본 연구의 예측변수인 일반적 신뢰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고,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종속 변수인 귀인에 영향을 미치기에, 통제를 위해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타인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경험할 때, 그리고 행위자가 내집단 구성원일 경우와 외집단 구성원일 때, 그 행동을 어느 정도로 내부 귀인 및 외부 귀인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 사람들은 외집단에 비우호적이거나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양준용, 유명순, 2014; 이승민, 설선희, 2018; 이재열, 2015)을 토대로,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은 덜 내부 귀인하고 더 외부 귀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불쾌한 행동은 더 내부 귀인하고 덜 외부 귀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경향을 일반적 신뢰 수준이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 신뢰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귀인 편향을 적게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타인의 집단소속, 행동의 유인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귀인이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가설 1-1. 내집단원의 행동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행동을 더 내부 귀인하고 덜 외부 귀인할 것이다.

가설 1-2. 유쾌한 행동에 비하여 불쾌한 행동을 더 내부 귀인하고 덜 외부 귀인할 것이다.

가설 1-3. 일반적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 신뢰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타인의 행동을 덜 내부 귀인하고 더 외부 귀인할 것이다.

연구문제 2. 타인의 집단소속과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의 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설 2-1.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은 덜 내부 귀인하고 더 외부 귀인하며, 불쾌한 행동은 더 내부 귀인하고 덜 외부 귀인할 것이다.

가설 2-2. 일반적 신뢰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내집단원의 행동보다 외집단원의 행동을 덜 내부 귀인하고 더 외부 귀인할 것이다.

가설 2-3. 일반적 신뢰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은 유쾌한 행동에 대해 더 내부 귀인하고 덜 외부 귀인하며, 불쾌한 행동은 덜 내부 귀인하고 더 외부 귀인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일반적 신뢰 수준은 내부 귀인이나 외부 귀인에 대한 타인의 집단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인가?

가설 3a.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은 더 내부 귀인하고 불쾌한 행동은 덜 내부 귀인할 것이다.

가설 3b.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은 덜 외부 귀인하고 불쾌한 행동은 더 외부 귀인할 것이다.

IV. 연구 방법

1. 예비 연구

선행 연구들(Kitayama, Ishii, Imada, Takemura, & Ramaswamy, 2006; Miller, 1984)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 및 불쾌한 행동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들을 구성하였다. 이후 (1) 시나리오에 묘사된 행동을 내집단원이 하는 경우와 외집단원이 하는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유쾌하거나 불쾌하게 지각되는지, 그리고 (2) 시나리오 속 행동을 내집단원이 할 가능성과 외집단원이 할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쾌한 행동(박스 운반 도움, 음식 서비스, 빈 자리 양보, 지갑 찾아주기, 시험자료 공유, 사은품 추가 증정)과 불쾌한 행동(빗물 튀김, 물품 가로채기, 문충돌, 반려동물 방입, 화장실 새치기, 엘리베이터 정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각 6개씩 총 12개 구성하고, 조건에 따라 각 시나리오의 행위자가 내집단원인 경우와 외집단원인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내집단원인 경우는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의 택배가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였다. 택배 상자들을 한아름 들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걷고 있는데, 아파트 동 입구에서 만난 같은 층의 이웃이 상자 몇 개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들고 와주었다.’와 같이 설정하였다. 외집단원인 경우는 ‘아파트 동 입구에서 만난 같은 층의 이웃’을 ‘아파트 동 입구를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내집단원 조건과 외집단원 조건에서 동일한 무선적인 순서로 12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58명이었다(여성 = 50, 남성 = 8; 연령 $M = 23.26$, $SD = 5.35$).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 조건이나 외집단원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고, 제시되는 12개의 시나리오를 읽고 각각의

행동이 유쾌하거나 불쾌한 정도 및 현실적인 정도를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1 = 매우 불쾌하다/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6 = 매우 유쾌하다/매우 있을 법하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본연구에서 사용할 유쾌한 행동과 불쾌한 행동 각 2개씩 총 4개의 행동을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인가와 현실성에서 내집단 조건과 외집단 조건 간에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유쾌한 행동 4개와 불쾌한 행동 4개를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유쾌한 행동의 경우 6점 척도의 중간값인 3.5를 기준으로 유인가와 현실성의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척도의 중간값과 유의하고 높은 평균 차이를 보이는 음식 서비스(유인가 $M = 5.52$, $t(57) = 23.44$, $p < .001$; 현실성 $M = 4.41$, $t(60) = 6.13$, $p < .001$)와 지갑 찾아주기(유인가 $M=5.45$, $t(57) = 19.12$, $p < .001$; 현실성 $M = 4.61$, $t(60) = 9.42$, $p < .001$)를 선정하였다. 불쾌한 행동의 경우 4개 중 단일표본 t 검증 결과, 중간값인 3.5를 기준으로 유인가와 현실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화장실 새치기를 우선 선정하였다(유인가 $M = 1.64$, $t(57) = -12.67$, $p < .001$; 현실성 $M = 4.26$, $t(60) = 4.87$, $p < .001$). 나머지 불쾌한 행동 3개 중 현실성의 단일표본 t 검증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유인가의 단일표본 t 검증에서 중간값과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 충돌을 선정하였다(유인가 $M = 2.52$, $t(57) = -5.69$, $p < .001$; 현실성 $M = 3.41$, $t(60) = -.52$, $p = .603$).

2. 본 연구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일반적 신뢰와 귀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인바이트 장훈 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성별과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 328명¹⁾을 온라인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사례로 현금 3천원 상당의 온라인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2) 측정 도구

① 귀인

예비 연구에서 선정된 2개의 유쾌한 행동과 2개의 불쾌한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각 시나리오를 읽고, 묘사된 행동을 어느 정도 내부 귀인 및 외부 귀인하는지 답하였다. 또한, 귀인이 사후가정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Goodman, 1983; Hofstadter, 1985), 각 시나리오에 묘사된 행동에 대한 연구 참가자들의 사후가정적 사고도 측정하였다. 사후가정적 사고란 “만약 ... 했다면, ... 했을텐데” 또는 “하지 않았다면, ... 했을텐데”라며 이미 발생한 사실과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사후가정적 사고는 제시된 특정 조건이 뚜렷해졌을 때 판단이 더 극단적으로 형성되는 대비효과를 발생시키며, 조건문의 형태로 표현되므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Roese & Olson, 1996). 따라서 사후가정적 사고를 파악하는 것은 귀인의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1) G*Power 3.1.9.2를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위한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72명의 연구 참가자가 요구되었다(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증력 .95로 설정함). 추가적인 검증을 하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t-검증 실시하기 위한 표본의 수 또한 고려하였다.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증력 .95로 설정하여 산출된 표본 수는 21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탈락률을 고려하여 약 300 여 명의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2개의 귀인 문항은 시나리오 속 행동이 어느 정도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선행 연구(Kitayama, Ishii, Imada, Takemura, & Ramaswamy, 2006; Morris & Peng, 1994)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부 귀인 문항은 “(어떤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이며, 외부 귀인 문항은 “(어떤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이다. 2개의 내부와 외부 사후가정적 사고 문항은 “(어떤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그 사람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와 “(어떤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그 사람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속 행위자가 내집단원인 조건과 외집단원인 조건 중 하나에 무선택당 되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제시되는 모든 문항들에 대하여 7점 척도로 답하였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신뢰도(Chronbach's α)는 .87이었다.

② 일반적 신뢰 척도

Yamagishi와 Yamagishi(1994)가 개발한 일반적 신뢰 척도(General Trust Scale; GT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알지 못하는 타인이나 일반 대중을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선하거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Yamagishi와 Yamagishi(1994)의 연구에서 관찰된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는 일본의 학생, 일본의 성인, 미국의 학생, 미국의 성인의 순서대로 각각 .76, .70, .72,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신뢰도 (Chronbach's α)는 .76이었다.

③ 편집성향 척도(Paranoia Scale)

통제 변수로 연구 참가자들의 편집성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편집성향 척도(Paranoia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비임상군을 대상으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피해의식, 불신, 의심 등의 측면에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종종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흠잡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 등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 계수 (Chronbach's α)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내적 합치도 계수 (Chronbach's α)는 .91이었다.

④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종교를 및 월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직업이나 학력보다 경제적 지위가 심리적·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더 반영하는 추세여서 (Greitemeyer & Sagioglou, 2016; Kraus, Côté, & Keltner, 2010; Kraus, Piff, & Keltner, 2009; Piff, 2014)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신뢰 관련 선행 연구(Kawachi, Kennedy, Lochner & Prothrow-Stith, 1997)에 따라 직업 대신 월평균 가계 소득을 측정하였다.

3) 연구 절차

(주인바이트 장훈장학회를 통하여 모집된 연구 참가자들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제시된 동의서를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첫 번째 절차로, 모든 연구 참가자들에게 일반적 신뢰를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 조건과 외집단원 조건에 무선할당 되어 귀인과 사후가정적 사고에 관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이후, 연구 참가자들의 편집 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 v.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행위자의 집단 소속: 내집단원 vs. 외집단원)x2(행동의 유인가: 유쾌 vs. 불쾌)x2(일반적 신뢰 수준: 고 vs. 저)의 혼합설계를 따랐다. 따라서 연구 참가자 간 변수인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일반적 신뢰 수준, 연구 참가자 내 변수인 행동의 유인가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²⁾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중앙값($Mdn = 4.08$)을 기준으로 고 집단과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계량척도인 일반적 신뢰를 고, 저의 두 수준으로 이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으며, 행위자의 집단

2) 종속변수인 귀인과 편집성향 간의 상관은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편집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이에서도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속은 연구 참가자 간 요인으로, 귀인 척도는 선행 연구에 따라 연구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여 측정하는 혼합설계이다. Mixed ANOVA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 신뢰를 두 집단(고-저)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때 중위수 분리법 (median split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량척도를 이분화하는 데 따른 문제점으로 제 1종 오류 증가, 제 2종 오류 증가, 연구 참가자 개인 차이의 손실, 예측력 감소 등에 대하여 경고하는 제안이 있다(이형권, 2016; Rucker, McShane, & Preacher, 2015). 그러나 변수의 측정(일반적 신뢰 수준 고-저)이 어려운 경우, 예측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및 표본 수가 큰 경우에 이분화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안(Iacobucci, et al, 2015a; 2015b; Metze, 2008)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이분화는 타당화된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을 고려한 점, 예측 변수 간 상관의 유의하지 않은 점에서 이분화에 따른 한계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G-Power를 사용하여 표본을 산출할 때 .95의 높은 검증력을 설정하였고, 산출된 표본 수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이분화 적용에서의 문제점은 보완되었다.

V. 연구 결과

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

본 분석에 앞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40.37세 였다(여성 $M = 40.01$, $SD = 10.17$; 남성 $M = 40.70$, $SD = 9.56$).

일반적 신뢰의 평균은 4.10($SD = 0.62$)이었으며, 고 집단과 저 집단의 평균은 각각 4.58($SD = 0.39$)과 3.61($SD = 0.39$)이었다. 편집성향의 평균은 2.44($SD = 0.55$)였다. 귀인의 방향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쾌한 행동의 내부 귀인 점수와 불쾌한 행동의 내부 귀인 점수를 합하여 내부 귀인 점수를 계산하였고, 외부 귀인 점수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외부 귀인($M = 4.80$, $SD = 0.91$)보다는 내부 귀인($M = 5.35$, $SD = 0.81$)을 더 많이 하였다, $t(327) = 12.047$, $p < .001$.

다음으로, 주요 변수인 귀인, 일반적 신뢰, 그리고 통제 변수인 편집성향의 기술통계치와 변수들 간의 상관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적 신뢰의 경우, 유쾌한 행동의 내부 귀인, 불쾌한 행동의 외부 귀인, 유쾌한 행동의 외부 귀인 및 불쾌한 행동의 외부 귀인 등 네 가지 각각의 귀인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네 가지 귀인은 일반적 신뢰 외에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일반적 신뢰는 편집성향 및 종교 유무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연령 및 월평균 가계 소득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별과의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가능한 오차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원호택, 1995)에서 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편집성향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관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귀인과 편집성향 간의 상관은 위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편집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이에서도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공분산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28)

특성	구분	인원 수(명)	백분율(%)
성별	남	170	51.8
	녀	158	48.2
연령대	20 대	56	17.1
	30 대	95	29.0
	40 대	94	28.7
	50 대	60	18.3
	60 대	23	7.0
종교	기독교	73	22.3
	천주교	37	11.3
	불교	38	11.6
	기타	8	2.4
	없음	172	52.4
월평균 가계 소득	200 미만	30	9.1
	300 미만	53	16.2
	400 미만	58	17.7
	500 미만	64	19.5
	600 미만	46	14.0
	700 미만	32	9.8
	800 미만	14	4.3
	900 미만	12	3.7
	900 이상	19	5.8

표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 ($N = 328$)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59**	-									
3	.56**	.37**	-								
4	.34**	.56**	.42**	-							
5	.02	-.01	-.06	.00	-						
6	.17	.07	.11	.10	.05	-					
7	.01	.07	.01	.02	.01	-.01	-				
8	-.03	-.05	-.04	.05	.22**	-.03	-.04	-			
9	-.04	-.02	-.02	.08	-.04**	-.03	-.00	.18**	-		
10	-.06	-.05	-.05	-.02	.14*	-.01	-.05	.19**	.08	-	
11	-.08	.05	-.04	.05	-.34**	-.07	-.04	-.09	.08	-.17**	-
<i>M</i>	5.31	4.95	5.39	4.65	4.10	.50	.48	40.37	.48	4.13	2.44
<i>SD</i>	0.93	0.97	0.91	1.09	0.62	.50	.50	9.85	.50	2.14	0.55

주. 1=유쾌한 행동의 내부 귀인, 2=유쾌한 행동의 외부 귀인, 3=불쾌한 행동의 내부 귀인, 4=불쾌한 행동의 외부 귀인, 5=일반적 신뢰, 6=소속 집단, 7=성별, 8=연령, 9=종교의 유무, 10=가정의 월소득, 11=편집 성향

* $p < .05$, ** $p < .01$.

2.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귀인의 차이

먼저, 행위자의 집단 소속에 따라 귀인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원의 행동($M = 5.22$, $SD = 0.86$)보다 외집단원의 행동($M = 5.47$, $SD = 0.74$)을 더 내부 귀인하고 그 차이가 유의하여 가설의 일부가 지지되었다, $t(326) = -2.83$, $p = .005$. 그러나 내집단원의 행동($M = 4.71$, $SD = 0.92$)과 외집단원의 행동($M = 4.89$,

$SD = 0.90$)을 외부 귀인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외부 귀인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t(326) = -2.83, p = .074$. 요컨대,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보다 외집단원의 행동을 내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하였으나,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행동이 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행동의 유인가에 따라 귀인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쾌한 행동($M = 5.31, SD = 0.93$)과 불쾌한 행동을($M = 5.39, SD = 0.91$) 내부 귀인하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327) = -1.742, p = .082$. 반면, 가설과 일관되게 유쾌한 행동은 보다 외부 귀인($M = 4.95, SD = 0.97$)을 하였고, 불쾌한 행동은 그보다 유의하게 덜 외부 귀인($M = 4.65, SD = 1.09$)을 하였다, $t(327) = 5.40, p < .001$. 요컨대, 연구 참가자들은 유쾌한 행동보다 불쾌한 행동의 원인을 상황으로 돌리는 경향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귀인이 달라지는지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낮은 일반적 신뢰 수준과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의 사람들은 내부 귀인(낮은 신뢰; $M = 5.34, SD = 0.88$, 높은 신뢰; $M = 5.36, SD = 0.74$)하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26) = -0.229, p = .819$. 외부 귀인 역시 낮은 일반적 신뢰 수준($M = 4.79, SD = 0.91$)과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M = 4.81, SD = 0.91$)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t(326) = -0.152, p = .880$,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종합하건대,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라서 귀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일반적 신뢰 수준은 귀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3.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 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먼저,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 귀인에 대한 집단 소속×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323) = 1.325, p = .250$. 외부 귀인 또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323) = 0.898, p = .344$.

다음으로,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일반적 신뢰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 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행위자의 집단소속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324) = 0.000, p = .985$. 외부 귀인에 대해서도 일반적 신뢰 수준×행위자의 집단소속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324) = 0.596, p = .441$.

마지막으로, 일반적 신뢰 수준과 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 효과를 마찬가지로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내부 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F(1, 323) = 0.095, p = .759$, 마찬가지로 외부 귀인에 대하여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F(1, 323) = 0.388, p = .534$.

4.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1) 내부 귀인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내집단원과 외집단원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하여 내부 귀인하거나 외부 귀인하는 정도를 개인의 일반적 신뢰 수준이 조절하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부 귀인에 대한 2(집단 소속: 내집단원 vs. 외집단원)×2(행동의 유인가: 유쾌 vs. 불쾌)×2(일반적 신뢰 수준: 높은 일반적 신뢰 vs. 낮은 일반적 신뢰)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324) =$

4.73, $p = .03$. 따라서 내부 귀인에 대하여 일반적 신뢰 수준이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3.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내부 귀인의 변량분석

변산원	<i>df</i>	<i>F</i>	η^2	<i>p</i>
피험자 간				
행위자의 집단 소속	1.00	7.92	.02	.01
일반적 신뢰 수준	1.00	0.17	.00	.90
행위자의 집단 소속×신뢰 수준	1.00	0.00	.00	.99
오차	324.00			
피험자 내				
유인가	1.00	4.08	.01	.04
유인가×행위자의 집단 소속	1.00	1.36	.00	.25
유인가×신뢰 수준	1.00	0.11	.00	.74
행위자의 집단 소속×유인가×신뢰 수준	1.00	4.63	.01	.03
오차	3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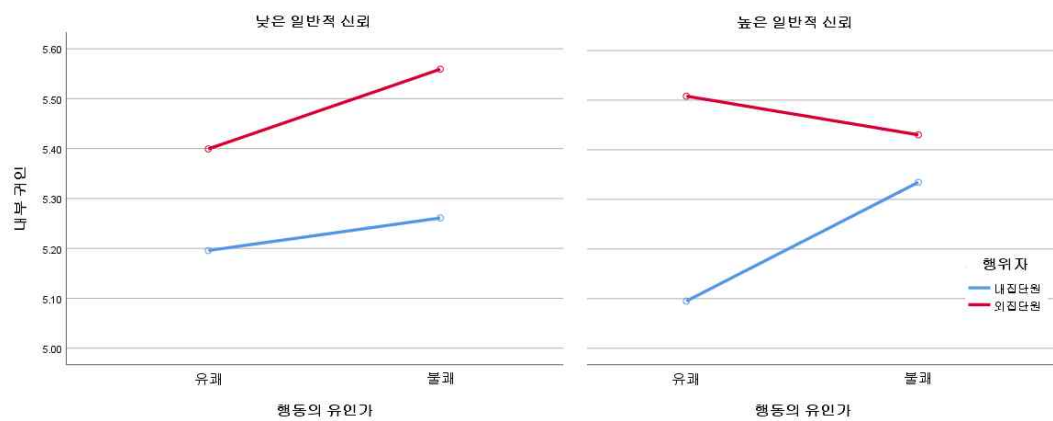


그림 1. 내부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행동의 유인가×일반적 신뢰 수준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삼원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 이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의 이원상호작용은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높은 일반적 신뢰의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의 유쾌한 행동($M = 5.10, SD = .94$)보다 외집단원 유쾌한 행동($M = 5.51, SD = 0.75$)을 더 내부 귀인하였다, $F(1, 324) = 8.17, p = .01$. 이는,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타인의 유쾌한 행동에 대하여 내적 속성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내부 귀인의 변량분석 (낮은 일반적 신뢰)

변산원	<i>df</i>	<i>F</i>	η^2	<i>p</i>
피험자 간				
행위자의 집단 소속	1.00	3.31	.02	.07
오차	162.00			
피험자 내				
유인가	1.00	2.28	.01	.13
행위자의 집단 소속×유인가	1.00	0.40	.00	.53
오차	162.00			

표 5.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내부 귀인의 변량분석
(높은 일반적 신뢰)

변산원	<i>df</i>	<i>F</i>	η^2	<i>p</i>
피험자 간				
행위자의 집단 소속	1.00	5.21	.03	.03
오차	162.00			
피험자 내				
유인가	1.00	1.81	.01	.18
행위자의 집단 소속×유인가	1.00	7.01	.04	.01
오차	162.00			

높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서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행위자의 집단 소속 조건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집단원의 유쾌한 행동($M = 5.10$, $SD = 0.94$)과 불쾌한 행동($M = 5.33$, $SD = 0.88$)의 내부 귀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60$, $p = .01$. 그러나,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M = 5.51$, $SD = 0.75$)과 불쾌한 행동($M = 5.43$, $SD = 0.75$)의 내부 귀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 = 1.00$, $p = .32$. 즉, 일반적 신뢰가 높은 연구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외집단원일 경우 행동의 유인가에 따라 내부 귀인을 다르게 하지 않았으나, 내집단원의 행동에 대하여는 유쾌한 행동보다 불쾌한 행동을 더 내부 귀인하였다.

2) 외부 귀인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

외부 귀인에 대한 2(집단 소속: 내집단원 vs. 외집단원)×2(행동의 유인가: 유쾌 vs. 불쾌)×2(일반적 신뢰 수준: 높은 일반적 신뢰 vs. 낮은 일반적 신뢰)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324) = 2.98$, $p = .09$. 따라서 외부 귀인에 대하여 일반적 신뢰 수준이 조절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행위자의 집단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외부 귀인의 변량분석

변산원	<i>df</i>	<i>F</i>	η^2	<i>p</i>
피험자 간				
행위자의 집단 소속	1.00	3.18	.01	.08
일반적 신뢰 수준	1.00	0.01	.00	.94
행위자의 집단 소속×신뢰 수준	1.00	0.60	.00	.44
오차	324.00			
피험자 내				
유인가	1.00	26.52	.08	.00
유인가×행위자의 집단 소속	1.00	0.82	.00	.37
유인가×신뢰 수준	1.00	0.22	.00	.64
행위자의 집단 소속×유인가×신뢰 수준	1.00	2.98	.01	.09
오차	324.00			

VI.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집단 소속에 따라, 행동의 유인가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에 대한 요인들 간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일반적 신뢰 수준이 조절하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가 외집단원인지 내집단원인지에 따라, 그리고 유쾌한 행동인지 불쾌한 행동인지에 따라 내부 귀인이나 외부 귀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집단원보다 외집단원의 행동은 더 내부 귀인하였다. 그러나 외부 귀인하는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쾌한 행동과 불쾌한 행동에 대한 내부 귀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쾌한 행동보다 불쾌한 행동을 덜 외부 귀인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들의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둘째,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 및 일반적 신뢰 수준의 세 가지 요인들 간에 이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집단원인지 내집단원인지에 따라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의 내부 귀인 정도와 외부 귀인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외집단원일 때와 내집단원일 때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을 하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유쾌하거나 불쾌한 행동에 대한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신뢰 수준, 행위자의 집단 소속 및 행동의 유인가를 동시에 고려할 때 내부 귀인에 대한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신뢰가 낮은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

의 불쾌한 행동에 대해 내부 귀인을 다르게 하지 않았으나, 일반적 신뢰가 높은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에 대해 더 내부 귀인을 하였다. 그러나 외부 귀인에 대해서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가설 전부가 지지된 것은 아니지만, 선행 연구의 결과가 일부 반복검증 되었고, 본 연구의 주제인 타인의 행동 원인에 대한 추론과 일반적 신뢰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의 가설들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외부 귀인보다는 내부 귀인을 한다는 기본적 귀인 오류를 확인하였고, 낯선 타인이나 외집단원에 대하여는 상황을 고려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행동이 기질적이라고 추론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Gilbert & Malone, 1995; Quattrone & Jones, 1980). 따라서, 행동의 유쾌하거나 불쾌한 유인가의 구분 없이 외집단원의 행동을 내부 귀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집단 소속, 행동의 유인가와 일반적 신뢰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경우,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의 원인이 행위자의 내적 속성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행위자의 특성, 즉, 외모, 목소리, 태도, 따뜻함 및 유능성 뿐만 아니라 지각하는 주체의 특성이자, 귀인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일반적 신뢰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일반적 신뢰 수준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위자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각각의 조건들에서의 측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탐색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혼합설계를 통하여 지

각자의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행동의 유인가의 각각 다른 부분에 반응하여 외집단원과 내집단원 간 내부 귀인의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외집단원에 대하여 유쾌한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돌리는 긍정적인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신뢰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집단원에 비하여 외집단원의 유쾌한 행동의 원인이 행위자의 내적 특성 때문이라고 추론을 하지만, 행위자가 내집단원인 경우에 한하여 유쾌한 행동보다 불쾌한 행동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여겼다. 높은 일반적 신뢰 조건에서의 이러한 단순 주효과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어서 아래에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일반적 신뢰가 높은 연구 참가자들은 내집단원의 유쾌한 행동보다 불쾌한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내부 귀인하였는데, 내부 귀인에 대한 행동의 유인가에 따른 차이는 주효과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구 참가자 모두에게서 검은 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일반적 신뢰 수준이 높은 참가자들에게서만 검은 양 효과가 나타났다. 검은 양 효과가 낮은 일반적 신뢰가 아닌 높은 일반적 신뢰 조건에서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검은 양 효과는 주로 집단 수준에서 연구되었으며(Marques, Robalo, & Rocha, 1992; Marques, Yzerbyt, & Leyens, 1988; Pinto, Marques, Levine, & Abrams, 2010) 개인 수준에서 연구가 수행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신뢰와 검은 양 효과와의 관련성은, 공평성 위반자에게 보인 높은 일반적 신뢰의 연구 참가자가 보인 부정적 반응(Stouten, De Cremer, & Van Dijk, 2006)을 통해 타당하게 유추할 수 있다. Stouten과 동료들(2006)은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행위자의 선한 의도를 확신하는 만큼 행위자들이 도덕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는 제안(De Cremer, D., Snyder, M., & Dewitte, S., 2001; Ring, P. S., & Van de Ven, A. H., 1994)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신뢰가 높은 개인은 위반 행동이 위반자의 외부적 사정이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위반자의 내부적 원인, 가령 이기적 동기 등이 위반 행위의 원인이라고 듣게 되면, 일반적 신뢰가 낮은 개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높은 일반적 신뢰의 연구 참가자들이 불쾌한 행동에 보인 부정적 반응은, 집단이나 사회의 규범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집단 소속과 행동의 유인가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인 내집단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로 내집단 동일시를 연구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로 느꼈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존감을 자신이 속한 집단에게로 확장시켜 나타나는 내집단 편향은, 내집단이 마치 자기 자신인 듯한 정체감을 느껴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에서의 외집단원은 낯선 타인으로, 내집단원은 회사 선배, 친구, 사촌, 조카의 지인으로 설정되었다. 가족주의가 강하고 사회적 연대가 약한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시나리오 속 내집단원과의 동일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내집단 동일시를 느낄 수 있는 내집단의 범주와 관련된 문제를 Delhey와 동료들(2005)이 제안한 바 있다.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해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내집단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외집단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 상세히 논하였다.

일반적 신뢰를 묻는 문항은 대체로 단일 질문으로 ‘낯선 타인’에 대한 묘사를 “대부분의 사람들”로 진술된 문항을 사용해왔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물론 국내의 연구들도 타당한 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 신뢰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 신뢰의 객관적인 수준을 평가할 필요성을

거론하며 Delhey와 동료들(2005)은 반경 조정 신뢰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범주는 각 개인과 각 국가마다 그 넓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교 문화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범위가 더 좁고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 넓은데, 일반적 신뢰의 표준 질문을 반경 조정 신뢰도로 대체하면 국가별 순위가 크게 달라진다. 5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Delhey와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 한국의 일반적 신뢰는 반경 조정 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유사하게 중하(中下) 수준이었는데, 조정 후에는 칠레나 세르비아와 유사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50여개 국가 중 반경조정으로 인하여 일반적 신뢰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가 한국이었다. 순위가 10위 이상 하락한 국가는 한국과 태국이 유일했다. 한편, 반경 조정에 있어 문화 차이를 직접 밝힌 선행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와 대조적으로 신뢰 대상을 적은 반경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신뢰 반경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고유한 특징으로 매우 잘 이해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제안되었다(Van Hoorn, 201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이 행위자의 집단 소속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를 조사 또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로, 행동의 유쾌함이나 불쾌함이 자신이나 내집단의 이미지나 가치를 고양시키거나 손상시키는 종류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쾌함이나 불쾌함은 행동이 바람직하거나 일탈적일 때를 포함하여, 지각하는 주체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해가 될 때, 우연히 혹은 의도적일 때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모두 귀인적 가중치가 같은 것은 아니다(Trafimow, Bromgard, Finlay, & Ketelaar, 2005). 불쾌 유인가의 정도와 그 앞에서 설명한 높은 일반적 신뢰의 참가자들이 보인 검은 양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행동의 유인가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집단의 범주를 다양하게 고

려하여 내집단과의 동일시 정도를 함께 탐색하는 후속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상에서 실시하고 글로 제시된 시나리오 연구의 한계점을 가진다. 실제 경험과 달리 글로 제시된 시나리오를 접한 연구 참가자들은 제시된 상황에 몰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자기 보고식 응답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반응 왜곡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험적 설계를 통하여 행동 관찰 결과를 측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신뢰는 귀인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라 내부 귀인이나 외부 귀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귀인에 대한 행위자의 집단 소속의 영향, 그리고 귀인에 대한 행동의 유인가의 영향에서 일반적 신뢰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절 효과만 나타난 결과를, 사람들이 귀인을 하는 이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여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욕구로 인해 귀인을 한다(Heider,1958). 이러한 이유에 비추어 일반적 신뢰의 개념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 신뢰가 통제와 예측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심리적 도구로써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 신뢰는 타인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일종의 신념, 혹은 가치관으로써, 귀인하는 주체의 타인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어 귀인의 결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낯선 타인과 관련된 측면에서, 예측이나 통제의 욕구가 비교적 배제된 보다 순수한 인지의 영역인 대인 지각에서는 일반적 신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몇몇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실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많이 연구되지 못했던 일반적 신뢰를 다룬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긍정

적으로 고려하는 속성이, 높은 일반적 신뢰의 사람들에게 내재한다는 결과를 보여,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일반적 신뢰가 갖는 긍정적 기능을 조명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강철희 이상철 (2013). 한국인의 보편적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1-28.
- 권석만. (201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미영, & 나승일. (2015). 대기업 임원 비서의 직무수행과 성격 5요인, 상사-부하 교환관계(LMX) 및 임과워먼트의 관계. 大韓經營學會誌, 28(8), 2107-2128.
- 김영수. (2004). 시민단체의 갈등중재 역할. 고양: 한국학술정보.
- 도홍찬 (2015). 고등학생들이 바라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윤리교육의 반성. 倫理研究, 103(-), 115-144.
- 류태건 (2014). 한국,일본,미국,독일의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수준과 영향요인 비교분석. 韓國 政治 研究, 23(3), 189-218.
- 박상필. (2001).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간의 갈등: 사법개혁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2001 년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박원우, 류승민. (2005). 개인, 집단, 조직에 신뢰와 불신의 선행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311-337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 Yuan Ying, J.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박진영, 최혜원, 서은국 (2012). 물질주의와 인간관계 경시의 심리적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23-36.
- 박희봉, 이희창, 김동욱, 김철수, & 박병래. (2003).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韓國政策學會報, 12(3), 199-227.
- 신지은, 최혜원, 서은국, 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양준용, 유명순 (2014). 단체참여가 내집단과 외집단 사이 신뢰격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4(6), 529-532.
- 원호택, 이훈진 (1997).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173-182.
- 이동규, 민연경 (2014). 정부위기 이후, 재난안전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 1150-1168.
- 이승민, 설선희 (2018).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내집단·외집단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8), 276-276.
- 이재열. (2015).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2), 3-29.
- 이형권.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觀光研究, 31(3), 213-248.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4(1), 83-94.
- 정수복. (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 과제. 박영률 출판사.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 김양하. (2005). 한국문화에서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20.
- 최상진, 김의철, & 김기범. (2003). 한국사회에서의 대인관계속의 신뢰와 불신의 기반으로서의 마음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17.
- 한성열, 한민, 犬宮義行, 심경섭 (2015). 문화심리학. 서울: 학지사.

- Arkin, R., Cooper, H., & Kolditz, T. (1980). A statis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concerning the self serving attribution bias in interpersonal influence situations 1. *Journal of Personality, 48*(4), 435-448.
- Aronson, E., Akert, R. M., & Wilson, T. D. (2010). *Sozialpsychologie*: Pearson Deutschland GmbH.
- Balliet, D., Wu, J., & De Dreu, C. K. (2014). Ingroup favoritism in cooper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556.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ailey, C. A., & Ostrov, J. M. (2008). Differentiating forms and functions of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Associations with hostile attribution biases and normative belief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6), 713-722.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23.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29-444.
- Chiot, D. E., & Seligman, M. E. (2001). Ethnopolitical warfare: Causes, consequences, and possible solu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9), 949-960.
- Das, T. K., & Teng, B.-S. (1998). Between trust and control: Developing

- confidence in partner cooperation in allian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91-512.
- De Cremer, D., Snyder, M., & Dewitte, S. (2001). 'The less I trust, the less I contribute (or not)?' The effects of trust, accountability and self monitoring in social dilemma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93-107.
- Delhey, J., & Newton, K. (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311-327.
- Delhey, J., Newton, K., & Welzel, C.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Doosje, B., & Branscombe, N. R. (2003). Attributions for the negative historical actions of a 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2), 235-248.
- Dunn, J., Ruedy, N. E., & Schweitzer, M. E. (2012). It hurts both ways: How social comparisons harm affective and cognitive trus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7(1), 2-14.
- Elangovan, A., & Shapiro, D. L. (1998). Betrayal of trust in organizations. *Academy of Banagement Review*, 23(3), 547-566.
- Fiske, S. T., Taylor, S. E. (2010). (두뇌로부터 문화에 이르는) 사회인지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신현정 역). 서울: 박학사. (원전은 2006에 출판)
- Flynn, F. J. (2005). Having an open mind: the impact of openness to

- experience on interracial attitudes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816.
- Fukuyama, F. (2002).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희 역). 서울: 韓國經濟新聞社. (원전은 1995에 출판)
- Gilbert, D. T., & Malone, P. 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1), 21.
- Goodman, N. (1983). *Fact, fiction, and forecast*. Harvard University Press.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Jr,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504-528.
- Graham, J. R., & Graham, J. R. (2007). *MMPI-2 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 [MMPI-2: Assess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김지영, 문혜신, 박현진, 유성진, 이훈진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6에 출판)
- Greitemeyer, T., & Sagioglou, C. (2016).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causes aggression: A test of the theory of social dep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2), 178.
- Gretar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64.
- Hagen, J. M., & Choe, S. (1998). Trust in Japanese interfirm relations: Institutional sanctions matt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589-60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wstone, M. (1990).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ntergroup causal attribu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0(4), 311-335.
- Hewstone, M., Rubin, M., & Willis, H. (2002).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575-604.
- Hofstadter, D. (1985). *Mathematical chaos and strange attractors*. Chapter 16 in *Metamagical Themas*. In: New York: Basic Books.
-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v2018-09-12:Current official release 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 Jackson, J. W., James, A., Poulsen, J. R., & Dumford, J. (2016). Weight bias as a function of person variables and contact experi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6(4), 351-368.
- Johnson, J. T. (2001). On weakening the strongest link: Attribution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behavior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4), 408-422.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19-266
- Jones, E., & Nisbett, R. (1971).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behavior. Morristown. I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awachi, I., Kennedy, B. P., Lochner, K., & Prothrow-Stith, D. (1997). Social capital, income inequality, and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7*(9), 1491-1498.
- Kelley, H. H. (1973). The processe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8*(2), 107.
- Kitayama, S., Ishii, K., Imada, T., Takemura, K., & Ramaswamy, J. (2006). Voluntary settlement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Evidence from Japan's northern front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3), 369.
- Kokkinos, C. M., Karagianni, K., & Voulgaridou, I. (2017). Relational aggression, big five and hostile attribution bias in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2*, 101-113.
- Kraus, M. W., Côté, S., & Keltner, D. (2010). Social class, contextualism, and empathic accuracy. *Psychological science, 21*(11), 1716-1723.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6), 992.
- Iacobucci, D., Posavac, S. S., Kardes, F. R., Schneider, M. J., & Popovich, D. L. (2015a). The median split: Robust, refined, and revived.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5*(4), 690-704.
- Iacobucci, D., Posavac, S. S., Kardes, F. R., Schneider, M. J., & Popovich, D. L. (2015b). Toward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a median split.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5*(4), 652-665.
- Marques, J. M., Robalo, E. M., & Rocha, S. A. (1992). Ingroup bias and

- the 'black sheep'effect: Assessing the impact of social identification and perceived variability on group judgem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4), 331-352.
- Marques, J. M., Yzerbyt, V. Y., & Leyens, J. P. (1988). The "black sheep effect": Extremity of judgments towards ingroup members as a function of group iden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1), 1-16.
- Malle, B. F. (2006). The actor-observer asymmetry in attribution: A (surprising)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6), 895.
- Masuda, T., & Kitayama, S. (2004). Perceiver-induced constraint and attitude attribution in Japan and the US: A case for the cultural dependence of the correspondence bia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3), 409-416.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cCrae, R. R., & Costa Jr, P. T.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
- Metze, K. (2008). Dichotomization of continuous data - a pitfall in prognostic factor studies. *Pathology-Research and Practice*, 3(204), 213-214.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2), 213.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961.

- Montoro, A., Shih, P.-C., Román, M., & Martínez-Molina, A. (2014). Spanish adaptation of Yamagishi general trust scale. *Anales de Psicología/Annals of Psychology*, 30(1), 302-307.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
- Mullen, B., & Riordan, C. A. (1988). Self Serving Attributions for Performance in Naturalistic Settings: A Meta Analytic Review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1), 3-22.
- Newton, K. (2007).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 O'Sullivan, M. (2003).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in detecting deception: The boy-who-cried-wolf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0), 1316-1327.
- Otten, S., & Gordijn, E. H. (2014). Was it one of us? How people cope with misconduct by fellow ingroup member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8(4), 165-177.
- Peterson, C., Maier, S. F., & Seligman, M. E. (1993). *Learned helplessness: A theory for the age of personal control: Theory for the Age of Personal*.
- Pettigrew, T. F. (1979). The ultimate attribution error: Extending Allport's cognitive analysi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4), 461-476.
- Piff, P. K. (2014). Wealth and the inflated self: Class, entitlement, and

-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 34-43.
- Pinto, I. R., Marques, J. M., Levine, J. M., & Abrams, D. (2010). Membership status and subjective group dynamics: Who triggers the black shee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1), 107.
- Putnam, R. D. (2009). 나 홀로 볼링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정승현 역). 서울: 페이퍼 로드. (원전은 2000에 출판)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Vol. 4. Available online: <http://www.prospect.org/print/vol/13> (accessed 7 April 2003).
- Quattrone, G. A., & Jones, E. E. (1980). The perception of variability within in-groups and out-groups: Implications for the law of small nu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1), 141.
- Ring, P. S., & Van de Ven, A. H. (1994).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operative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1), 90-118.
- Roese, N. J., & Olson, J. M. (1996). Counterfactuals, causal attributions, and the hindsight bias: A conceptual integr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3), 197-227.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¹.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173-220): Elsevier.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4), 296-320.
- Shaver, K. G. (1991). 귀인이론: 행위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심리학 [An introduction to attribution processes]. (최순영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전은 1975에 출판)
- Sherman, J. W., Stroessner, S. J., Conrey, F. R., & Azam, O. A. (2005). Prejudice and stereotype maintenance processes: attention, attribution, and individ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607.
- Steinberg, M. S., & Dodge, K. A. (1983). Attributional bia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 312-321.
- Stewart, T. L., Latu, I. M., Kawakami, K., & Myers, A. C. (2010). Consider the situation: Reducing automatic stereotyping through situational attribution train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1), 221-225.
- Stouten, J., De Cremer, D., & Van Dijk, E. (2006). Violating equality in social dilemmas: Emotional and retributive reactions as a function of trust, attribution, and hones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7), 894-906.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178.

- Tajfel, H., Turner, J. C., Austin, W. G., & Worchel, S.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Organizational Identity: A reader*, 56-65.
- Tarrant, M., & North, A. C. (2004). Explanations for positive and negative behavior: The intergroup attribution bias in achieved groups. *Current Psychology*, 23(2), 161-172.
- Tarrant, M., North, A. C., & Hargreaves, D. J. (2001). Social categorization, self-esteem, and the estimated musical preferences of male adolesc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5), 565-581.
- Taylor, D. M., & Doria, J. R. (1981). Self-serving and group-serving bias in attributio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2), 201-211.
- Taylor, S. E., & Koivumaki, J. H. (1976). The perception of self and others: Acquaintanceship, affect, and actor-observer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4), 403.
- Terrell, F., Terrell, I. S., & Von Drashek, S. R. (2000). Loneliness and fear of intimacy among adolescents who were taught not to trust strangers during childhood. *Adolescence*, 35(140), 611.
- Tomlinson, E. C., & Mryer, R. C. (2009). The role of causal attribution dimensions in trust repai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4(1), 85-104.
- Trafimow, D., Bromgard, I. K., Finlay, K. A., & Ketelaar, T. (2005). The role of affect in determining the attributional weight of immoral behavio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7), 935-948.
- Uslaner, E. M. (1998). Social capital, television, and the "mean world":

- Trust, optimism, and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3), 441-467.
- Uslaner, E. M. (2013). 신뢰의 힘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박수철 역). 서울: 오늘의 책. (원전은 2002에 출판)
- Uslaner, E.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Hoorn, A. (2015). Individualist - collectivist culture and trust radius: A multilevel approa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2), 269-276.
- Vescio, T. K., Sechrist, G. B., & Paolucci, M. P. (2003).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reduction: The mediational role of empathy arous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4), 455-472.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1), 3.
- Weiner, B. (1992). *Human motivation: Metaphors, theories, and research*.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Weiner, B., Osborne, D., & Rudolph, U. (2011).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reactions to poverty: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giver and the perceived morality of the receiv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2), 199-213.
- Whitener, E. M., Brodt, S. E., Korsgaard, M. A., & Werner, J. M. (1998). Managers as initiators of trust: An exchange relationship framework for understanding managerial trustworthy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513-530.

- Yamagishi, M. and Yamagishi, T. (1989). Trust, Commit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twork Structures. at the Workshop for the Beyond Bureaucracy Research Project, December. Hong Kong.
- Yamagishi, T. (1988a). The provision of a sanction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265-271.
- Yamagishi, T., Kikuchi, M., & Kosugi, M. (1999). Trust, gullibility, and social intellig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45-161.
- Yamagishi, T., Cook, K. S., & Watabe, M. (1998). Uncertainty, trust, and commitment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1), AJSv104p165-194.
- Yamagishi, T., & Yam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 Ybarra, O., Stephan, W. G., & Schaberg, L. (2000). Misanthropic memory for the behavior of group me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12), 1515-1525.

ABSTRACT

The effects of group affiliation and valence of behavior on Attribution : Moderation effect of general trust level

Hayo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individuals with high or low general trust levels attribute when they experience pleasant or unpleasant behavior of others, and when the actor is a member of a in-group or out-group. For this, it was performed with a repeated measure within-between subjects design of 2 (actor's group: in-group vs. out-group) x2 (valence of behavior: pleasant vs. unpleasant) x2 (general trust level: high vs. low). 328 adults aged 19 and over were recruited online nationwide and responded to the general trust scale, attribution scale, and demographic questions.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ribution on general trust, but a 3-way interaction between general trust, valence of behavior and actor's group.

For the participants with low general trust,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with the actor's group affiliation and the valence of behaviors. While, the participants with high general trust attributed positively behaviors of out-group members to internal attribution. In addition, it showed a black sheep effect which attributed more unpleasant behaviors to internal attribution for in-group members only.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partially supported, an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ttributions were replicated. In addition, this study has signification in dealing with the general trust that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Korea despite its real importance, and it has some meaning the positive function of general trust in the understanding of others who do not know well.

key words : general trust, attribution, valence of behavior, in-group members, out-group members

부록

1. 예비연구 질문지

- 1) 내집단 조건
- 2) 외집단 조건

2. 본 연구 질문지

- 1) 일반적 신뢰
- 2) 귀인
 - ① 내집단 조건
 - ② 외집단 조건
- 3) 편집성향

1. 예비연구 질문지

1)내집단 조건

<행동의 유인가>

아래의 각 상황들이 불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유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 날 회사 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에 의해 도로의 고인물이 내 옷에 많이 튀었다.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회사동료였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대형마트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여 구매하려던 사과에 손을 뻗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집어서 그 사람의 카트에 챙겨 넣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동생이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구청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사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연 바람에 다시 세계 닫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일요일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잘생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조기 축구회 주민과 마주쳐서 '멋지게 생긴 녀석이네요'라고 주민에게 인사를 했는데, 반려견이 나를 향해 사납게 짖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어린이날 같은 유치원 원아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관람하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볼 일이 급하다는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같은 일행인 어머니가 딸과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사람이 막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 ‘참느라 힘들었지?’ 라며 자신의 딸을 들여보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우리 회사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래처의 팀장에게 오늘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참이었다. 먼저 일정이 잡혀있던 고객과의 상담이 생각보다 길어져 귀사가 늦은 상황이라 사무실이 16층인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만큼 초조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 중에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밖에서 열림버튼을 반복적으로 빨리 누르며 우리 부서 동료가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회사 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에 의해 도로의 고인물이 내 옷에 많이 튀었다.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회사동료였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대형마트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여 구매하려던 사과에 손을 뻗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집어서 그 사람의 카트에 챙겨 넣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동생이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구청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사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연 바람에 다시 세계 달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일요일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잘 생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조기 축구회 주민과 마주쳐서 '멋지게 생긴 녀석이네요'라고 주민에게 인사를 했는데, 반려견이 나를 향해 사납게 짖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어린이날 같은 유치원 원아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관람하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볼 일이 급하다는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같은 일행인 어머니가 딸과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사람이 막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 '참느라 힘들었지?'라며 자신의 딸을 들여보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우리 회사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래처의 팀장에게 오늘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참이었다. 먼저 일정이 잡혀있던 고객과의 상담이 생각보다 길어져 귀사가 늦은 상황이라 사무실이 16층인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만큼 초조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 중에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밖에서 열림버튼을 반복적으로 빨리 누르며 우리 부서 동료가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현실성> 아래의 각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있을 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쇼핑으로 장을 본 택배가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였다. 다소 무겁고 큰 택배상자를 들고 걷는데 아파트 동 입구에서 만난 같은 층의 이웃이 엘리베이터 앞에 함께 와서 버튼을 눌러 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학교 선배가 일하고 있는 고깃집에서 동아리 멤버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서빙하던 선배가 돼지불갈비를 메뉴에 새로 추가했다며 맛을 보라고 덤으로 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어머니와 둘이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많았으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앉아있던 우연히 만난 교회 후배가 일어나 맞은편 다른 자리로 옮겨서 어머니와 함께 앉을 수 있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주말이라 친구들과 민속촌에 놀러가서 한옥들을 구경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중이다. 풍물놀이를 구경하다가 잠시 실 검 음료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 주머니에 없었다. 뒤따라오던 친구가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지는 것을 보고 주웠다며 건네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어제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이 있었다.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서 오랜 시간 함께 강의를 듣고 정보를 공유하던 동료 수강생이 시험 이틀 전에 출제 예상 문제라면서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데다가 동료가 건네준 자료에서 유사한 문제도 두어 개 출제되어 무난히 시험을 치렀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동네에 한 대형 의류점이 신장개업을 하였다. 개업 기념 이벤트 진행 요원들이 방문한 고객들에게 소액할인 쿠폰 1장과 생수 1병씩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인 동생의 친구가 행사 요원으로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나를 보더니 짹짹하게 인사를 하면서 나에게 쿠폰을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장 더 건네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회사 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에 의해 도로의 고인물이 내 옷에 많이 튀었다.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회사동료였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대형마트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여 구매하려던 사과에 손을 뻗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집어서 그 사람의 카트에 챙겨 넣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동생이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구청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사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연 바람에 다시 세계 닫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일요일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잘 생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조기 축구회 주민과 마주쳐서 '멋지게 생긴 녀석이네 요'라고 주민에게 인사를 했는데, 반려견이 나를 향해 사납게 짖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어린이날 같은 유치원 원아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관람하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볼 일이 급하다는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같은 일행인 어머니가 딸과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사람이 막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 ‘참느라 힘들었지?’ 라며 자신의 딸을 들여보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우리 회사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래처의 팀장에게 오늘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참이었다. 먼저 일정이 잡혀있던 고객과의 상담이 생각보다 길어져 귀사가 늦은 상황이라 사무실이 16층인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만큼 초조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 중에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밖에서 열림버튼을 반복적으로 빨리 누르며 우리 부서 동료가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2)외집단 조건

<행동의 유인가>

아래의 각 상황들이 불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유쾌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쇼핑으로 장을 본 택배가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였다. 다소 무겁고 큰 택배상자를 들고 걷는데 아파트 동 입구를 지나가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함께 와서 버튼을 눌러 주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고깃집에서 동아리 멤버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서빙하던 직원이 돼지불갈비를 메뉴에 새로 추가했다며 맛을 보라고 덤으로 주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어머니와 둘이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많았으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 맞은편 다른 자리로 옮겨서 어머니와 함께 앉을 수 있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주말이라 친구들과 민속촌에 놀러가서 한옥들을 구경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중이다. 풍물놀이를 구경하다가 잠시 설 겸 음료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 주머니에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지는 것을 보고 주웠다며 뒤따라와서 건네주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어제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이 있었다. 시험 당일 아침 고사장 근처에서 학원 홍보를 하는 듯한 사람이 출제 예상 문제라면서 자료를 배포하기에 받아서 입실하였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데다가 배포 받은 자료에서 유사한 문제도 두어 개 출제되어 무난히 시험을 치렀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동네에 한 대형 의류점이 신장개업을 하였다. 개업 기념 이벤트 진행 요원들이 방문한 고객들에게 소액할인 쿠폰 1장과 생수 1병씩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행사 진행 요원은 내가 구매한 쇼핑백의 부피가 큰 것을 보고 짹짹하게 인사를 하면서 나에게 쿠폰을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장 더 건네주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회사 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에 의해 도로의 고인물이 내 옷에 많이 튀었다.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대형마트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여 구매하려던 사과에 손을 뻗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집어서 그 사람의 카트에 챙겨 넣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모르는 사람이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구청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사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연 바람에 다시 세계 달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일요일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잘 생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멋지게 생긴 녀석이네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반려견이 나를 향해 사납게 짖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어린이날 가족 모두가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보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볼 일이 급하다는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모르는 여성이 딸인 듯한 어린이와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사람이 막 나가고 있는 화장실에 ‘참느라 힘들었지?’ 라며 자신의 딸을 들여보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우리 회사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래처의 팀장에게 오늘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참이었다. 먼저 일정이 잡혀있던 고객과의 상담이 생각보다 길어져 귀사가 늦은 상황이라 사무실이 16층인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만큼 초조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 중에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밖에서 열림버튼을 반복적으로 빨리 누르며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었다.

1	2	3	4	5	6
매우 불쾌하다	대체로 불쾌하다	약간 불쾌하다	약간 유쾌하다	대체로 유쾌하다	매우 유쾌하다

<현실성> 아래의 각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있을 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생각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온라인 쇼핑으로 장을 본 택배가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였다. 다소 무겁고 큰 택배상자를 들고 걷는데 아파트 동 입구를 지나가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함께 와서 버튼을 눌러 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고깃집에서 동아리 멤버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서빙하던 직원이 돼지불갈비를 메뉴에 새로 추가했다며 맛을 보라고 덤으로 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어머니와 둘이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가 많았으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 맞은편 다른 자리로 옮겨서 어머니와 함께 앉을 수 있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주말이라 친구들과 민속촌에 놀러가서 한옥들을 구경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중이다. 풍물놀이를 구경하다가 잠시 설 겸 음료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 주머니에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지는 것을 보고 주웠다며 뒤따라와서 건네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어제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이 있었다. 시험 당일 아침 고사장 근처에서 학원 홍보를 하는 듯한 사람이 출제 예상 문제라면서 자료를 배포하기에 받아서 입실하였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한데다가 배포 받은 자료에서 유사한 문제도 두어 개 출제되어 무난히 시험을 치렀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동네에 한 대형 의류점이 신장개업을 하였다. 개업 기념 이벤트 진행 요원들이 방문한 고객들에게 소액할인 쿠폰 1장과 생수 1병씩을 나누어주고 있었다. 행사 진행 요원은 내가 구매한 쇼핑백의 부피가 큰 것을 보고 짹짹하게 인사를 하면서 나에게

쿠폰을 다른 사람들보다 한 장 더 건네주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회사 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바퀴에 의해 도로의 고인 물이 내 옷에 많이 튀었다. 상황을 알아차렸는지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다가 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대형마트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여 구매하려던 사과에 손을 뻗고 있는 순간 어떤 사람이 그 사과를 집어서 그 사람의 카트에 챙겨 넣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모르는 사람이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구청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사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연 바람에 다시 세계 달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쳤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일요일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반려견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잘 생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멋지게 생긴 녀석이네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반려견이 나를 향해 사납게 짖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어린이날 가족 모두가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보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볼 일이 급하다는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모르는 여성이 딸인 듯한 어린이와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사람이 막 나오

고 있는 화장실에 ‘참느라 힘들었지?’ 라며 자신의 딸을 들여보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우리 회사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래처의 팀장에게 오늘 전달해야하는 중요한 계약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참이었다. 먼저 일정이 잡혀있던 고객과의 상담이 생각보다 길어져 귀사가 늦은 상황이라 사무실이 16층인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만큼 초조하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 중에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밖에서 열림버튼을 반복적으로 빨리 누르며 모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었다.

1	2	3	4	5	6
전혀 있을 법하지 않다	별로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지 않다	약간 있을 법하다	대체로 있을 법하다	매우 있을 법하다

2. 본 연구 질문지

1)일반적 신뢰

아래의 각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답해 주십시오. 별도의 정답이나 오답이 없는 질문이므로, 귀하께서 생각하거나 느끼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1	2	3	4	5	6	7
		매우 하지	동의 않음	←-----	-----→	매우 동의함		
1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3	모든 사람에게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면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							
4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							
5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이다. *							
6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봐 자신을 항상 방어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7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8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							
9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							
10	누구든 악의적일 수 있다고 믿는 편이 더 안전하다. *							
11	어느 쪽인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이다.							
12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							

* 는 역채점 문항

2) 귀인

① 내집단 조건

지시문 : 이 질문을 통해 본 연구자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상황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각 상황마다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귀하께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한 몇몇 원인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인물의 행동이나 혹은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린 내용들도 제시될 것입니다. 제시되는 상황들을 주의 깊게 읽고 각 상황마다 제시된 진술들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목	1	2	3	4	5	6	7
		매우 하지	동의 않음	←-----		-----→		매우 동의함
<p>옛 직장 선배가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서빙하던 선배가 돼지불갈비를 메뉴에 새로이 추가하였다며 맛을 보라고 덤으로 주었다.</p>								
1	선배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선배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선배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선배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선배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선배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p>주말이라 친구들과 민속촌에 놀러가서 한옥들을 구경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중이었다. 풍물놀이를 구경하다가 잠시 쉴 겸 음료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 주머니에 없었다. 뒤따라오던 친구가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지는 것을 보고 주웠다며 건네주었다.</p>								
1	친구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친구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친구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친구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친구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친구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p>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앞서 가던 사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열었다. 그 바람에 세계 열렸다가 닫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혔다.</p>								
1	사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사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사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사촌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사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사촌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p>어린이날 같은 유치원 원아들과 그 보호자들이 함께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관람하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불 일이 급하다는 조카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같은 유치원 원아의 보호자 중 한 명이 어린이와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참느라 힘들었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데리고 온 어린이를 사람이 막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 들여보냈다.</p>								
1	보호자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보호자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보호자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보호자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보호자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보호자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① 외집단 조건

지시문 : 이 질문을 통해 본 연구자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상황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각 상황마다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귀하께 그 인물의 행동에 대한 몇몇 원인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인물의 행동이나 혹은 그 인물 자체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린 내용들도 제시될 것입니다. 제시되는 상황들을 주의 깊게 읽고 각 상황마다 제시된 진술들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항목	1	2	3	4	5	6	7
		매우 동의 ←----- -----> 매우 하지 않음 동의함						
<p>처음 가보는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서빙하던 사장님이 돼지 불갈비를 메뉴에 새로 추가하였다며 맛을 보라고 덤으로 주었다.</p>								
1	사장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사장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사장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사장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p>주말이라 친구들과 민속촌에 놀러가서 한옥들을 구경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중이었다. 풍물놀이를 구경하다가 잠시 쉴 겸 음료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고 보니 주머니에 없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지는 것을 보고 주웠다며 뒤따라와서 건네주었다.</p>								
1	지갑을 주워 준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지갑을 주워 준 사람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지갑을 주워 준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지갑을 주워 준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p>해외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사촌과 함께 여권 신청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후 구청을 나서는데 앞서가던 낯선 사람이 문을 힘주어 밀어서 열었다. 그 바람에 세계 열렸다가 닫히는 문에 머리를 부딪쳤다.</p>								
1	낯선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낯선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낮선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낮선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p>어린이날 같은 유치원 원아들과 그 보호자들이 함께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관람하러 갔다. 인터미션 타임에 볼 일이 급하다는 조카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관람객 중 하나인 듯한 처음 보는 사람이 어린이와 함께 갑자기 들어오더니 줄을 서지 않고 사람이 막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 ‘참느라 힘들었지?’ 라며 자신이 데리고 온 어린이를 들여보냈다.</p>								
1	자신의 아이를 먼저 화장실에 들여보낸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2	자신의 아이를 먼저 화장실에 들여보낸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3	자신의 아이를 먼저 화장실에 들여보낸 사람의 특성(예를 들어 성격, 태도 또는 기질)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4	자신의 아이를 먼저 화장실에 들여보낸 사람의 주변환경 특성(예를 들어 사회적 분위기, 사회 규범 또는 기타 상황적 요인)이 달랐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3) 편집성향

번호	항목	1	2	3	4	5	6	7
		매우 하지	동의를 않음	←-----→			매우 동의함	
1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2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3	나는 이유 없이 벌 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고 생각된다.							
4	내 생각을 훔쳐가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							
5	나의 부모와 가족들은 필요 이상으로 내 흠을 잡는다.							
6	사람들은 남의 일에 진정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7	확실히 내 팔자는 사납다.							
8	사람들은 이득이 된다면 다소 옳지 못한 수단도 쓸 것이다.							
9	남이 나에게 잘 해 줄 때에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다.							
10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1	종종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흠잡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							
12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대개 자신에게 이로울 것 같기 때문이다.							
13	누군가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다.							
14	분명히 남들이 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15	사람들은 대개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남을 돕는 척 한다.							
16	예상외로 친하게 구는 사람을 경계하는 편이다.							
17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모욕적이고 매정한 말을 한다.							
18	사람들은 종종 나를 실망시킨다.							
19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괴롭다.							
20	단지 자기들이 먼저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좋은 생각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